

## 얼뻘해진 청년

어느 마을에 남의 말을 듣는등마는등 제 말만 제 말이라고 하는 철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농장벌에서 두엄을 나르던 처녀들이 모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틈에 끼여든 철남은 처녀들의 말허리를 푹 끊고 제 말을 펼쳐놓았습니다.

《야, 세상에는 참 기이한 섬도 있더구만. 키가 부쩍 부쩍 크는 섬이 있다는거야. 거기 사람들은 다른데 사람들보다 키가 큰데 흥미있는건 다른데서 온 사람들도 한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나면 몇센치미터씩 커진다는거야. 한번 가서 키 좀 커보지 않겠나?》

철남이 처녀들을 둘러보자 처녀들은 흥미있다는듯이 깔깔 웃어댔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처녀들은 다우쳐 물었습니다.

《그 섬이 어디에 있는 무슨 섬이래요?》

《어디에 있긴, 바다에 있지.》

《호호, 섬이 바다에 있지 룽지에 있겠나요?》

처녀들은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섬이름은 뭐래요?》

《섬이름은? 음... 뭐라더라?》

《그 섬에선 왜 키가 큰대요?》

《글쎄... 키크기운동을...》

《호호호.》

처녀들은 허리를 부여잡고 죽어라고 웃어댔습니다.

처녀들의 총알같은 질문에 말문이 막힌 철남이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시뻘개가지고 키크는 섬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영식이를 찾아가서 들이댔습니다.

《영식이, 너 알려면 똑바로 알아가지고 말을 해야지. 키크는 섬이 어디에 있으며 이름이 무엇인지. 왜 키가 크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서 남 망신만 시켜?》

《하하, 내가 그걸 왜 몰라. 키크는 섬은 서인디아제도의 마르띠니끄라는 섬이야. 키가 크는 리유는 이 섬에 있는 일종의 광물질방사선이 인체내부기능에서 특이한 변화를 일으키기때문이란 말이야.》

《알고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네가 내 말허리를 끊고 비누섬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비가 오면 흙이 비누거품을 일으키는데 흙을 집어서 빨래를 해도 된다면서 말이야.》

《내가 네 말허리를 끊었다구? 내가 그랬던가?》

《그랬던가가 뭐야. 내가 그 섬이 어디에 있는가고 따져물으니 대답을 못하고 말꼬리를 사리는통에 재미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니. 그래서 난 그후 책을 보고야 비누섬이 에게해에 있는 아로스안띠리아라는 섬이라는것, 이 섬의 바위들은 많은 알카리성물질을 포함하고있기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거품을 일으킨다는것을 알게 되었어.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똑 끊어버릇하면 레절에도 어긋나지만 결국 모든걸 얼빠하게 알아가지고 다니면서 망신하기가 일쑤지.》